

## 완전한 사회 정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성경말씀: 욥24:1-25

욥과 친구들의 3번 논쟁, 지난 주 2차 논쟁 끝 소발과 3차 논쟁 시작 엘리바스의 공격: 동일한 내용 너는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다. 변영신학

세 친구: 종교인, 위선자의 상태, 들으려고 살펴보고 하지 않는다. 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공격에도 불구하고 욥은 확신하다: 나는 죄가 없다(23:6).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욥은 지금 용광로 속에 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10). 목적: 그를 정결하게 하는 것, 때로는 고통과 슬픔이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12).

### 인생은 공정하지 않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범정에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밝히려고.

세 친구들은 사악한 자들이 신속히 멸망한다고 주장함(20:5,7 등). 세상은 공평하다. 욥은 No!

1절: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신다. 그러면 심판하는 날도 있지 않은가? 진노하시는 날

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 왜 세상에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따지고 싶다.

먼저 시골에서(1-11), 도시에서(12-17), 악한 자에 대한 심판과 저주(18-25), << >>

### 시골에서 일어나는 불공평한 일(1-11)

시골에서의 악한 일(2-4)

원래 옛날에는 지계표가 있었다. 랜드마크(신19:14; 27:17; 잠22:28; 23:10; 호5:10)

짐승의 경우 화인을 찍어서 구별, 그런데 악한 자들은 땅과 짐승을 다 탈취함(2-3)

그것도 약한 자들에게서(과부와 고아, 3절), 그 결과(4)

이들이 하는 일(5-11), 악한 자들이 착취하는 모습

부지런히 악을 행함(5), 헐벗은 자 착취(7-8), 학대(9-10), 11절을 보라.

가난한 자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함, 심지어 소도 먹을 것이 있다(신25:4).

사람들이 신음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신다(12).

욥의 논점: 너희 말대로 하나님이 신속히 사악한 자를 멸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 도시에서 일어나는 불공평한 일(14-17)

도시에서는 먼저 살인(14),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 토막살인, 연쇄 살인 등 잔혹 범죄 증가 간음(15), 도둑질(16-17),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신다.

### 세상은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항상 이 문제가 존재함, 노아, 욥,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지난 2000년 아삽의 시 73편, 1-6절

왜 이런 아이러니가 생길까? 사회 구조의; 문제, 사회는 사람들로 구성됨, 결국 사람의 문제

사람의 죄 때문이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짐

죄가 들어왔다. 요일2:15-16,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 왜 그들은 악한 일을 할까?

1. 그들은 빛을 거역하는 자들(13)

2. 여기의 빛은 일단 햇빛으로 볼 수 있다. 악한 자들은 대개 어둠을 좋아 한다. 죄도 어둠 속에서

3. 지식의 빛, a. 양심의 빛, 선과 악을 구별하는 빛, b. 계시의 빛: 자연, 성경

4. 참 빛 하나님, 그래서 악한 자들은 빛을 거부한다(요3:19-21).

### ‘정의란 무엇인가?': 완전한 정의는 구현 불가능

특히 사회 정의, 경제 정의 등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잘못 이해하면 국가가 망한다.

1. 이스라엘과 유다 패망의 원인: 우상 숭배와 사회 정의 실종

하나님은 선민들의 땅에서도 공평이 없을 것을 아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배려 강조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가진 선민도 이를 지키지 못함, 바빌론 포로 생활(미6:8)

포로 생활 이후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마23:14, 23, 25).

그래서 신약성경도 구제를 강조함

주님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부, 사회 제도가 약자, 가난한 자를 배려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이것은 프로테스탄트 정신, 신약 성경 정신: 그래서 정치인들을 잘 뽑아야 한다.

2. 그런데 이를 해결하려고 극단적인 처방을 쓰면 안 된다. 그것은 1850년대 이후에 등장한 공산주의 카톨릭 중세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남미 해방신학, 이것을 추구하면 가장 못 산다.

가장 이상적인 것을 약속한다. 그런데 안 된다. 인간의 죄 때문에 불가능, 인본주의

4월 27일 조선일보 기사 <전 세계 살인 38%는 중남미... 전쟁터보다 위험>, 전 세계에서 중남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8%인데, 살인으로 죽은 사람의 비중은 38%에 달한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작년 한 해 중남미에서 살인으로 14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며 "2000년 이후 17년간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죽은 전사자 수보다 많은 수치"라고 전했다.

3. 완전한 사회 정의는 불가능하다.

<편애하는 인간> 평등 강박에 빠진 현대인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 스티븐 아스마 (Against fairness) 누구 하나 나오되지 않고 공평하게 기회를 가지고 공정한 대가를 받으며 차별에 휘둘리지 않고 경쟁하고 평가받는 사회. 우리는 이런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사람들은 재능 있고 뛰어난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이러한 풍토가 불합리한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서울대학교, 삼성전자 좋아한다. 거기 출신과 결혼하려 한다. 그러면서도 무지 싫어한다. 삼성전자는 일을 할 수 없다. 경영권 방어, 노조 설립, 삼성이 망하거나 나가면 이 나라는 심각해진다. 이러한 불균형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공정'일까? 어느 한 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선호와 편애는 정말 우리의 삶을 불공평하게 만들까? 공정은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도덕적인 것이고, 편애는 나쁜 것, 버려야 할 마음, 부도덕한 것일까?

이 책은 '모든 사람을 사심 없이 똑같이 대하라'는 이상적 공정주의에 물들어 편애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지금 사회에 '정말 편애가 나쁜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4. 결론: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는 언제나 문제가 일어난다. 이 문제가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심각할 수도 덜 심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문제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무시하면 삶의 여정은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 고통과 슬픔, 불안과 질병, 소외감, 경제적 어려움까지 우리의 삶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들과 더불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라.

5. 솔로몬의 결론: 전5:8, 전8:14, 9:11-12

6. 그러나 끝이 난다(전8:12-13).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요일2:17).

#### 악한 자들의 운명(18-25)

이들은 결국 시냇물처럼, 눈처럼 결국 사라진다(18-19).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20).

그들의 번영은 반드시 끝난다(23-24). 1. 그들의 악을 모두 눈여겨보신다(23).

2. 그 결과 그들은 곧 끊어진다(24). 3. 곡식에서 가장 좋은 부분인 이삭이 반드시 잘리는 것처럼(24) 지금은 안 그래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25).

####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왜 두시는가?

1. 사악한 자도 쓸 데가 있다(잠16:4). 특히 사람들을 시험하시려고. 아합, 김정은이 등

2.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도 구원하려 하신다.

3. 우리도 한때는 다 악한 자였다. 죄짓는 즉시 죽죽 죽이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벧후3:9).

인간의 한계로 인해 완전한 행복, 공평은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완전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말씀 붙들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한다.

바르게 투표해야 한다. 바른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 좌파는 안 된다.